

2016년 3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33,419,337	전월이월금	385,827
지 로	2,669,710	우리은행	18,558,300
국민은행	5,412,000	하나은행	1,316,000
조흥은행	155,000	신한은행	1,530,000
외환은행	537,500	제일은행	270,000
농 협	1,710,000	기업은행	350,000
우 체 국	75,000	지정기탁	450,0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11,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베다니아의 집	1,011,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4,436,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총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5,163,148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2,330,000	산재, 진폐환자가정 생활비
지 출 총 액		26,929,148	잔액(이월금) 6,490,189

<쉼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1	4	0	25
베다니아의 집	5	0	0	5
벗들의 집	10	5	0	15
사랑의 집	12	0	0	12
마고네공부방	10	0	0	10

+ 친미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제자들이 무엇보다 해야 하는 일은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하느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이나 묻습니다.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양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양들을 제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잘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접근하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 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픈일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웃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른바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피부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 이웃들이 함께 어울리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피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풍습, 같은 문화를 지녔는데도 어울리는 일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파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나이다."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꾸준히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 사랑만이 모든 역경을 넘어 서로의 사랑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일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똑같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신앙이 있고, 똑같은 희망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왔건, 미얀마에서 왔건, 세상 어디서 왔건 우리는 한 마음, 하나의 신앙으로 한분이신 하느님, 한분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이주민축복나눔 미사 강론
서울대교구 총대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5월 후원미사는 16일, 6월 후원미사는 20일, 7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6년 3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5명입니다. 그 중 필리핀 환아(남, 4세)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2년에 입국한 이 환아는 기도협착 증후군으로 2015년 12월 당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의 협조로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1차 기도협착 분리수술을 무상으로 받았으나, 기도가 재협착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수술비도 없고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재수술 비용은 면제해줄 수 없다고 하여 천안모이세(충청지역의 이주민을 위한 상담소)를 통해 저희 이주사목위원회 상담실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상담실에서 우선 한 마음 한몸운동본부의 아동의료기금지원사업을 요청했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3월 30일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기도협착 분리수술은 시행할 수 있으나 또 다시 재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식도는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고 성인이 된 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옆구리에 있는 관으로 영양이 마가 시간 맞춰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마취 시 기도 활동이 저하되어 정상인의 경우에도 호흡이 약해져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병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도가 좁은 이 환아는 일반 마취를 하면 위험하다는 소견으로 중간마취(잠든 정도의 상태)로 국소마취를 하여 목을 절개한 후 관을 삽입하여 기도 확보 후 전신마취로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환아가 무사히 기도협착 분리수술을 잘 받고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제8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제8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가 4월 10일(일)에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어 이주노동자 1,30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제1부 축복미사(조규만 주교님 주례)로 시작하여 제2부 국가별 음식 나눔과 전통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이들이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4.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